주식회사 펭TV, 놀면 뭐하니 레코드사, 라끼남 그룹. 펭수와 유산슬(유재석) 그리고 라끼남(강호동)은 최근 방송가 최고의 인기 캐릭터로 꼽힌다. EBS '자이언트 펭TV', MBC '놀면 뭐하니?', tvN '라끼남'을 이끄는 이들은 각기 프로그램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 각 프로그램의 연출자들과 마치 소속사 사장과 연예인의 관계를 닮은 모습으로 시선을 모으며 시청자 사이에서 SM·YG·JYP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거대 기획사들의 입지를 뒤흔들 만한 방송가 '신흥 3대 기획사'로 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어떨까. 이들이 빚어낸 성과와 2020년의 전망을 토대로 작성한 가상의 기업보고서가 그 가치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192만 폭 넓은 팬덤 펭수 이제는 세계로

## 주식회사 펭TV

이슬예나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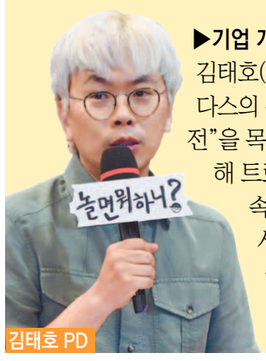
**▶기업 개요 :** 작년 4월 시작한 EBS '자이언트 펭TV'가 출발점. 수장인 이슬예나(PD) 대표가 '34세의 젊은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남극에서 날아온 10살 남짓 펭귄, 펭수가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다. 모기업 EBS는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삼았지만 '펭TV'는 유튜브, 타 방송사 출연 등 다양한 전략으로 2030세대와 중장년층까지 공략해 폭넓은 팬덤을 구축했다.

**▶사업 현황 및 성과 :** 유튜브 영상 제작이 주력 사업이다. 유행어인 "엣헴엣헴 신이 나~!"를 외치는 펭수의 영상이 신드롬급 인기의 발판이 됐다. 프로그램과 동명의 유튜브 계정을 만든 지 약 7개월 만인 작년 11월28일 100만 명을 넘겨 22일 현재 192만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65개의 자체 제작 영상도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최근 광고·굿즈 산업에도 집중한다. 홍삼, 참치 등 다양한 브랜드 모델로 나서 설 연휴 광고시장을 접수했다. 펭수다이어리는 예약 판매 1분 만에 200만 부, 잠옷은 3일 만에 3만 장을 팔아치웠다.

**▶향후 전망 :** 일각에서는 '반짝인기'라는 시선도 나왔지만, 새해에도 연일 상승세다. 최근 음원 발표 계획을 밝혀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펭수의 '우상'인 그룹 방탄소년단 등 각종 한류스타들과 함께 한 '인증샷' 덕분에 해외에서도 착실하게 인지도를 쌓고 있다. 2020년은 영역 확장과 세계 진출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늦장대처로 상표권을 제3자에 뺏길 뻔한 사례 등에 비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산슬 이어 유라섹 라면가게까지 오픈

## 놀면 뭐하니 레코드사




김태호 PD

**▶기업 개요 :** 14년간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해온 김태호(PD) 대표와 유재석의 '합작'. 방송가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김 대표가 "실험적인 도전"을 목표로 작년 7월 설립했다. 유재석을 비롯해 트로트가수 유산슬, 드러머 유고스타가 소속돼 있다. 방송인 조세호, 가수 유희열, 작사가 김이나 등 '스타군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업 현황 및 성과 :** 출범 직후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작년 4/4분기에 급격한 인기 상승곡선을 탔다. 유산슬이 '사랑의 재개발' '합정역 5번 출구' 등을 히트시켜 트로트 열풍에 불을 지핀 효과다. 시청률은 4%대(이하 닐슨코리아)에서 9%대까지 치솟았다. 음원 수익도 억대를 넘는다. 유고스타가 앨범 '유플래쉬'로 2억여 원을, 유산슬이 200여만 원의 공연비를 벌어들이며 밀알복지재단 등에 '통 크게' 기부했다.

**▶향후 전망 :** 음반사업과 콘서트에 집중해온 사업 영역을 요식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라섹(라면 끓이는 섹시한 남자)'을 영입해 18일 라면전문점 '인생라면'을 열었다. 중화요리 전문점도 곧 연다. 올해 목표는 오케스트라와 아이돌 그룹 협업 등으로, 종합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가 쏟아진다. 휴식기에 접어든 유산슬, 유고스타의 빈자리도 걱정 없다. 유케스트라, 유엑소 등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발굴해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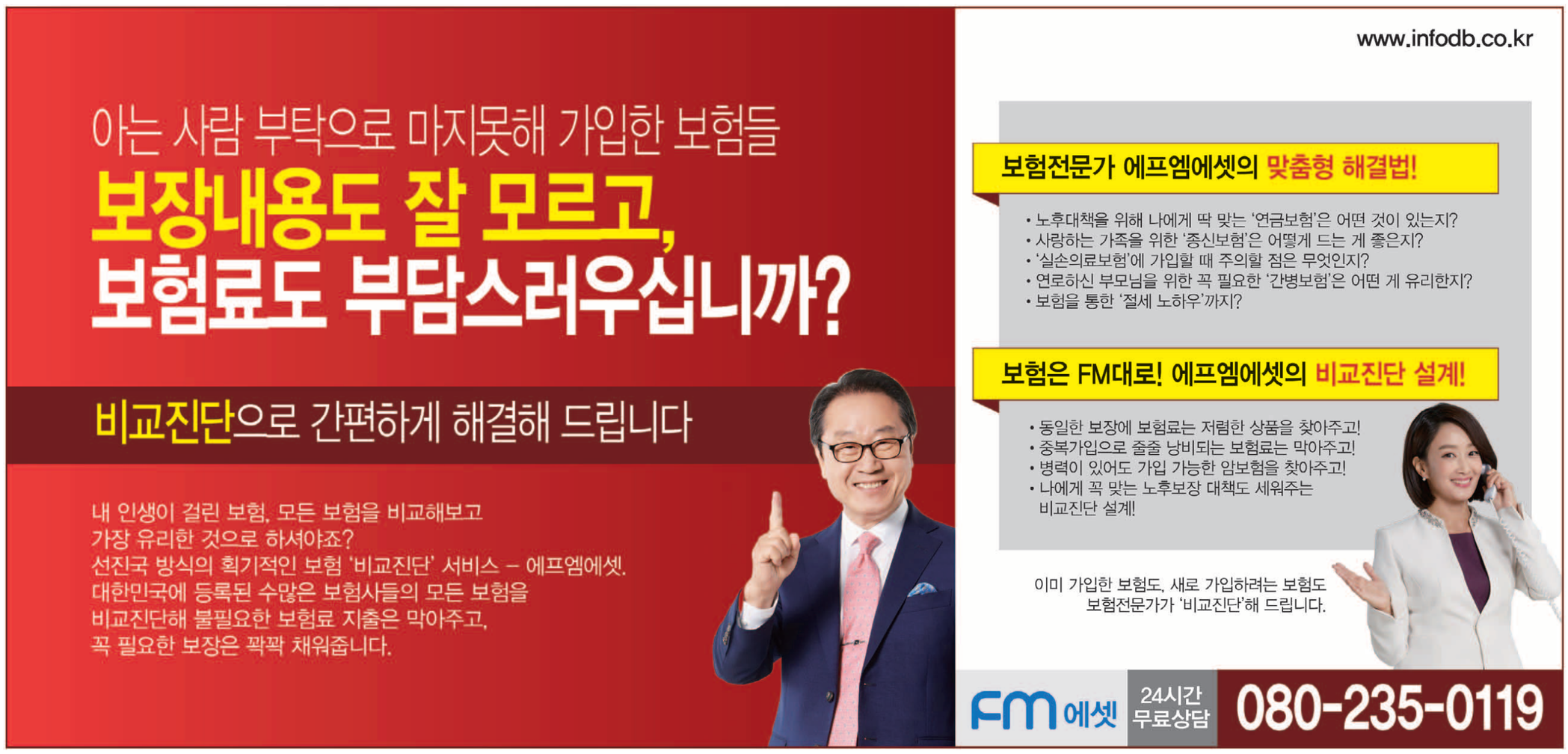
# 베일 싸인 라면소년 라끼남과 투톱 체제

## 라끼남 그룹

양정우 PD

**▶기업 개요 :** tvN '알쓸신잡' 시리즈 등으로 주목받은 신예 양정우(PD) 대표가 작년 12월6일 닻을 올렸다. '신서유기' 등을 내놓은 나영석(PD) 회장이 대주주다. '라면 끼리는 남자' 라끼남이 대표적인 소속 연예인이다.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훈에 따라 최근 얼굴을 숨긴 가수 라면소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본명부터 촬영 비화까지 "밝힐 수 없다"는 공식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업 현황 및 성과 :** 영상 콘텐츠 제작이 주력 같지만 요식업이 핵심이다.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전국 곳곳에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버너에 물을 올린다. 덕분에 라끼남은 유명 라면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발탁됐다. 유튜브 계정 '채널십오야'에서 공개하는 영상 조회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0만 뷰를 돌파한 영상이 벌써 12개나 된다. 음원사업도 시작했다. 라면소년의 '지리산 데이다' '머꼬송' 등을 11일 내놨다.

**▶향후 전망 :** 톡톡 튀는 영상과 라끼남의 진정성이 호평을 자아내고 있다. 기업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는다면 유튜브와 TV에서 모두 공고한 입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름부터 나이까지 베일 속에 감춰진 라면소년이 온라인상 입소문을 타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B급 감성의 새 주자가 탄생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양 대표는 22일 "라면소년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